

I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 아이배넷

‘아이와 함께 성장 ·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기업정신을 기조로 저소득 영유아가정 지원 미혼모 자립지원, 출산장려 및 영유아가정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을 꾸준히 펼쳐 지역사회의 공동 상생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분유, HMR, 간식, 이유식 등 건강한 영유아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되어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2019년부터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이름을 올린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아이배넷이 그 주인공.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정기탁물 사업’, ‘내 아이 첫 기부’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식품 기업 중 유일하게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민병관 대표를 만나봤다.

편집자주

Q.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기업정신을 기조로 영유아가정 지원, 미혼모 자립지원, 출산장려 및 영유아가정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갖고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충주메가폴리스 투자협약을 계기로 충주시와 인연을 이어가며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 및 아동들을 위한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아이배넷 충주공장 전경.



아이배넷은 2021년 프리미엄 밀키트 론칭을 기념해 진행한 배넷밀과 ‘함께하는 착한 소비’ 이벤트 수익금을 대한사회복지회에 기부했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이름 올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정기탁물 기부사업 등 활발

Q.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사회공헌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의미 있고 실질적인 기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는 충주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지정기탁물 사업’, 공식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내 아이 첫 기부’이다.

‘지정기탁물사업’은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이유식과 간식 등을 기수별로 6개월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지원 기준을 기존 36개월 미만

에서 60개월 미만으로 확대해 지원 아동의 수를 배로 늘렸고, 사업 시행도 연 2회로 고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식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내 아이 첫 기부’는 2019년 4월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최종 미션까지 완료한 서포터즈 얼마 본인과 아기의 이름으로 대한사회복지회에 아이배넷 제품을 현물로 후원하는 참여형 사회공헌사업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초저출산 위기 극복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아이가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담아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한 ‘다자녀 혜택’, ‘함께하는 육아!’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이배넷이 밀양복지재단을 통해 기부한 간식키트를 선물받은 아이들.

Q.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된 배경을 꼽는다면?

‘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라는 사회공헌 사업 기조 아래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아이와 엄마,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 건강한 나눔 문화를 꾸준히 실천한 것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된 배경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Q. 사회공헌활동으로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제품을 나누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임직원들의 인식과 자긍심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업계 유일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되며 대외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은 것 또한 가장 큰 성과다.

아울러, 본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며 다양한 기업·단체에서 공동 사회공헌 활동 제안을 받고 있다. 사회공헌의 역량과 범위를 확대시켜 지역사회에 더욱 영향력 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Q.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함께 화합하여 더 이상 소외된 이웃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기업문화 정착’을 실현하고자 한다.

Q.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을 소개해주세요.

기업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 추진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할 것이다.

또한,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 참여 접근성을 확대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충북도, 내년 육아수당 월 100만원 지급

정부지원금 등 포함... 어버이날 감사효도비도 연차별 추진
정책 부합성 등 종합적 검토 후 10월까지 구체적 계획 마련

충북도가 내년부터 출산수당과 함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도청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부터 정부지원금 포함해서 월 10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며 “추후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브리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할 예정인 부모수당에 기존 아동수당 등 정부지원금을 합쳐 월 100만원의 육아수당을 시·군이 부담해 지급하겠다는 약속으로 풀이된다.

그는 후보로 출마한 당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출산 1천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양육(육아)수당을 월 100만원씩 60개월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그러나 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육아수당을 민선8기 100대 공약과제에 넣지 않고 장기검토 과제로 선정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정부가 가정양육과 어린이집으로 나눠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아동수당도 10만원 지급한다. 여기에 부모수당을 점진적으로 100만원까지 지급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도 있다”며 “도가 얼마를 더 지급해야 100만원이 될 수 있는지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출산수당의 경우 첫만남 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포함해 4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현금성 공약 중 어버이날 감사효도비(30만원)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연령을 상향해 연차별로 추진하기로 했고, 농업인 공익수당은 60만원 이상으로 시작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김 지사가 11일 밝힌 육아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20일 충북도 서동경 복지정책과장은 충북도청 기자회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지급대상, 지원액, 시군과의 의견 조율 등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의 일정 이 소요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그는 “도와 시군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예산 범위 등 지급안과 각종 변수들을 포함해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세부적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지급한다는 것 이외에는 지급 범위나 지원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상황을 따파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충북도도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는 오는 10월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장애인 단기 돌봄센터 개관... 본격 운영

모든 장애인 최대 30일 이용

청주시는 ‘청주시 장애인 단기 돌봄센터’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서원구 산남동에 사업비 24억 원을 들여 부지 2천783㎡, 연면적 491㎡ 지상 2층 규모로 돌봄센터를 건립했다.

돌봄센터 1층은 사무실과 식당, 2층은 생활실과 프로그램실 등이 마련됐다.

돌봄센터는 전국 최초의 뉴딜형 디지털 전환장애인지원 단기거주시설이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 원, 보건복지부 지역균형뉴딜사업 4억 2천만 원의 국비예산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AI·IOT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가 구축됐다. 또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건립돼 에너지 효율이 높다.

돌봄센터는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긴급돌봄이



청주시 장애인 단기 돌봄센터.

필요할 경우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이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정원은 20명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돌봄을 주는 자 모두 편리한 시설기반 구축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부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장애인 단기 돌봄센터는 사회협동조합 휴먼케어(대표 송유정)가 2022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게 된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 255-0504, 253-0504 FAX:(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단양군, 발달장애인 활동기관 개소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 가족 돌봄 부담 경감 효과



김문근 군수와 조성룡 군의장 등이 지난 15일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개소식을 갖고 있다.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단양군지회(지회장 하남숙)가 지난 15일 바하 단양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 개소식에는 김문근 단양군수, 조성룡 단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내 ·외 장애인단체와 시설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향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면서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취미, 여가 활동, 직업탐구 활동, 관람체험 활동, 자조활동 등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다. 하남숙 지회장은 "오늘의 제공기관 개소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신 장애인과 가족들, 기관 · 단체 관계자들에 감사드린다"며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우리 사회를 위해 무더운 여름 기운 내고 우리 함께 손잡고 힘차게 앞으로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김문근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문제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지역사회가 다 함께 돌보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은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또는 바하 단양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043-422-1007)으로 문의하면 된다.



4기 청주시 아동참여위원들이 지난 9일 청주시 인사청사에서 발대식을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주시, 4기 아동참여위원회 발대

9~17세 24명... 교육·훈련 프로그램 통해 시정 참여

청주시는 지난 9일 인사청사 대회의실에서 아동참여위원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기 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

식을 했다고 밝혔다. 4기 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는 9~17세 아동 24명으로 구성됐다. 아동참여위원들은 지난 3월 공개

모집과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올해는 아동참여위원 신청 연령 하향 기준을 없앴 첫해로 보다 다양한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4기 위원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 정책에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크고 작은 일에 어른과 동일한 권리의 주체로서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풍경섭 복지국장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어렵지만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함께 하는 이 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낮은 사 진전을 통해 4기 아동 위원들의 열정과 활약을 알고 있다. 앞으로 참여와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이후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소통과 공감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안전과 보호, 참여와 시민의식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관련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예산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올해로 세 번째 발간한 아동친화예산서 제작으로 아동친화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진천군, 아동에 투자 많다... 아동예산지수 135.74

지난해 대비 7.77 상승... 놀이·여가 높은 비중 차지

진천군이 아동에 투자하는 예산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진천군이 발간한 '2022년 진천군 아동친화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아동친화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 5345억원(일반회계 기준)의 21%를 차지한다. 아동예산과 비아동예산을 비교한 아동예산지수도 높다. 진천군의 아동예산지수는 135.74다. 지난해 127.97보다 7.77 상승했다. 아동예산지수가 '100' 이하이

면 전체 예산 중 성인에게 지출하는 예산이 큰 것이고 '100' 이상이면 아동에게 지출하는 예산이 큰 것을 의미한다. 유니세프가 제시한 아동친화도 영역별 예산으로 보면 진천군의 예산은 놀이와 여가가 392억원(3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교육환경 300억원(27%), 가정환경 216억원(19%), 보건과 사회서비스 138억원(12%), 안전과 보호 70억원(6%),

참여와 시민의식 14억원(1%) 등 이 그 뒤를 이었다. 놀이와 여가, 교육환경 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아동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환경과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vms043@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늘어난다

특별교통수단 '행복콜' 증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충주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행복콜'을 5대 증차한다. 이번 증차로 충주지역에는 총 26대의 특별교통수단이 운행된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 기준 100%를 확

보해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구입한 행복콜 차량은 스티리아 슬로프 타입의 장애인용 차량으로, 추가 채용한 7명의 운전원이 안전교육 및 운행 준비를 마친 후 11일부터 운행된다. 행복콜 이용대상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보행성 장애가 있거나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국가유공상이등급 1·2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에 한해 사전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하다. 조길형 시장은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차량은 교체하고 지속적으로 운행차량을 늘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전자점자 서비스

민원 정보와 시정 소식 등 단말기로 전송

충주시가 시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했다. 전자점자 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민원정보와 시정 소식을 시각장애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는 홈페이지 내 항목마다 상

단에 '전자점자' 메뉴를 만들고 다양한 정보를 전자점자 파일로 변환해 제공한다. 홈페이지의 '전자점자보기' 메뉴를 누르면 해당 정보를 전자점자 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며, 이를 시각장애인이 보유하고 있는 점자점자 단말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점자프린터 출력용 파

일도 동시에 제공해 점자정보 단말기 없이도 내용을 점자로 인쇄해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전자점자 서비스는 충주시 대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열린시장실, 문화관광, 아동친화도시 등 관련 사이트에서도 함께 제공한다. 이창재 정보통신과장은 "전자점자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활동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역 취약계층의 심리·정서 맞춤 서비스 지원

청주시는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없다. 자녀가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임신부 본인과 출생자는 모든 의료비와 약제·치료제 구입비

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 당 120만 원 범위 내로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산모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로 온라인 신청하고 임신확인서와 등본 등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가까운 보건소에 제출해 신청·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보건소(043-201-3167), 서원보건소(043-201-3270), 흥덕보건소(043-201-3366), 청원보건소(043-201-3492)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군, '노인 치매예방 로봇사업' 추진

9300만원 투입... 로봇 7대 독거 노인에게 보급



음성군이 사회적 약자·돌봄 대상 치매예방 로봇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상 어르신들에게 치매 예방 로봇을 제공하는 '노인 치매예방 로봇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음성군은 충북형 농시조성사업에 선정돼 '노인 치매예방 로봇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9천

300만원으로 치매예방 로봇 7대(실버 1대, 보미 6대)를 지역의 독거 노인에게 보급한다. 치매예방로봇 '실버'는 그룹용 교육 로봇으로 치매예방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지훈련교육의 보조교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보미'는 스스로 학습 가능한 개인용 로봇으로 두뇌 향상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김두식 음성군노인복지관 과장은 "처음에는 낯설어하셨던 어르신들도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아 어려움 없이 사용한다"며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노년기 디지털 격차 해소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 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즉석식품	면류(리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최소 3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정류 및 식용류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최소 30일 이전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공류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7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빙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병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당일)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 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옥천군, '치매 조기진단 동행' 서비스

전문인력 방문-병원 동행-약품구매-귀가까지

옥천군은 도내 최초로 전문인력을 활용해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를 운영한다.

옥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 사업이 선정돼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 가족·이웃을 대신해 치매 전문인력이 거주지로 찾아가 치매 진단을 위한 병원 예

약·병원 검진을 동행하고, 처방전 확인·처방에 따른 약품구매와 귀가까지 돕는 서비스이다.

군은 취약지역 주민의 치매관리서비스 수혜율과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 2021년 청성·청산분소 지역키움터를 개소했다.

그러나 인지 저하자나 치매 의심자들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 후에도 거동 불편, 지적 접근성이 떨어져 혈액·소변검사, 뇌영상 촬영 등 추가

진단검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옥천군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8월부터 청성면, 청산면 지역에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 청성·청산 지역키움터 인력 2명에 간호인력 2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차량 2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는 안남면, 안내면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옥천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1.1%로 초고령사회이고 이 중 독거노인 가구 비율도 '19년 15.1%, '20년

15.4%, '21년 1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성면(66%), 청산면(63.8%)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옥천군 전체 평균(42.5%)과 타 읍면 지역보다 높다.

옥천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 특성에 맞는 거점형 치매안심센터 본소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구축하고, 치매전문인력 동행서비스로 환자와 가족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내 치매 인식개선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군, 배달대행업체 4곳과 협약 체결



이재영 증평군수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대표들이 25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선제적 예방 위해

증평군은 지난 25일 프렌즈 퀵서비스, 제트퀵서비스, 대한 퀵서비스, 고고퀵서비스 등 지역 배달대행업체들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선제적 예방을 위

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협력해 어려운 가정에 매일 음식 후원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나눔 문화

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사회구조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위기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사정을 잘 아는 배달 네트워킹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군은 위기징후 가구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맞춤형 지원을 위해 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상하수도사업소, 공동주택관리소장협의회, 소방서 등 5개 기관과도 MOU를 체결해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있다.

프렌즈퀵서비스 이재하 대표는 "증평군의 취약계층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쌓여 생각을 하다 배달대행업체 특성을 활용한 지역사회 후원활동을 하자는 뜻이 모아졌다"며 "앞으로의 후원활동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적극 동참해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며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가구에 배달대행업체 대표들과 이음답고 값진 동행을 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증평군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괴산여성취업지원센터는 15일 괴산여성회관에서 '2022년도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수료식을 가졌다.

괴산여성취업지원센터,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수료

11명 경력단절 여성 대상 사회복지실무 전문과정

괴산여성취업지원센터는 15일 괴산여성회관에서 '2022년도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괴산문화예술회 관 내 정보화 교육장에서 11명

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실무 전문과정이 운영됐다.

사회복지실무 전문과정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위주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복지관련 전문지식과 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한 수료생은 "경력단절로 인한 사무능력 및 기술부족으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신태혁 행정복지국장장은 "수료생 분들의 배움의 열정에 찬사를 보내며 본 과정에서 양성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군 지역발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여성취업지원센터는 구인구직상담, 취업준비교육, 찾아가는 기업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증평 무지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연태희 대표, 100만원 기탁

"서로 손 잡아주는 따뜻한 사회"

(사)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증평군지부 무지개장애인활동지원센터 연태희 대표가 4일 증평군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연태희 대표는 "기부를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소외되지 않고 평생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서로 손을 잡아주며 함께하는 따뜻한 증평군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영 군수는 "민선 6기 '감동 주는 평생 복지' 구현 방침에 따라 성금을 기탁해 나눔문화를 실천하는 연태희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사)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증평군지부 무지개장애인활동지원센터 연태희 대표(왼쪽)가 성금을 전달하고 이재영 군수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며 "장애인 여러분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증평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기부된 성금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예정이다.

'치매 극복 함께' 영동군 맞춤형 치매책임제

군치매안심센터 연계 차별화 복지 시책 추진



영동군보건소는 산림치유기관으로 지정된 치유의 숲 관계자에게 '치매안심등불'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영동군이 치매 극복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한다.

군은 갈수록 심화하는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에 공을 들여왔다.

군에서 밝힌 2022년 6월 기준 군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34.2%인 1만5천539명이다.

이에 군은 최근 '민주시민 치유의 숲'을 산림치유 기관으로 지정해

'치매안심등불' 현판과 기관 지정증을 전달했다.

"민주시민 치유의 숲"은 지난달부터 2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요가와 명상, 숲길 체험, 만들기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앞서 6월 초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된 영동읍 비탄·탑산·산이리 3개 마을에 치매 예방 일간판을 달았다. 현재 상촌면 공촌1리마을에 달았다. 현재 상촌면 공촌1리마을에 달았다. 현재 상촌면 공촌1리마을에 달았다.

정반아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 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치매 극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만 75세에 들어서는 주민에게 치매 조기 검진 독려를 위한 홍보물을 발송했고, 다음 달까지 매주 목요일 노인복지관에서 인지 워크 북을 이용한 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의 복약순응도 향상을 도와주는 '똑똑한 복약 두드림', 치매 환자·가족을 위한 자조 모임, 마중 프로그램 등도 운영했다.

또 충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양희원 교수를 협력의사로 위촉해 치매 진단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검진·치료비 지원, 치매 상담 운영, 조호 물품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동군치매안심센터(☎043-740-5943)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폭염안심꾸러미' 전달

사례관리 장애인·치매노인 250명에 이불·모자 등 9종 구성

보은군보건소는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 장애인과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 등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군내 노인 250명에게 '폭염안심꾸러미'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폭염안심꾸러미'는 여름 휴이불, 방장고 바지, 농사 모자, 색칠 공부, 인지 퍼즐, 색연필 등 모두 9종으로 구성되었으며, 운영질원에 특히 취약한 경도인지 장애우와 치매 노인들의 건강을 여름나기과 치매 약화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

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군민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치매 조기 검진을 하고 있으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환자 상담 운영, 치매 환자 돌봄 재활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치매 예방이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김기혜 건강증진 과장은 "이상온도에 따른 폭염으로 노인들의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치매



보은군보건소에서 군내 노인 250명에게 제공된 '폭염안심꾸러미'.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치매 노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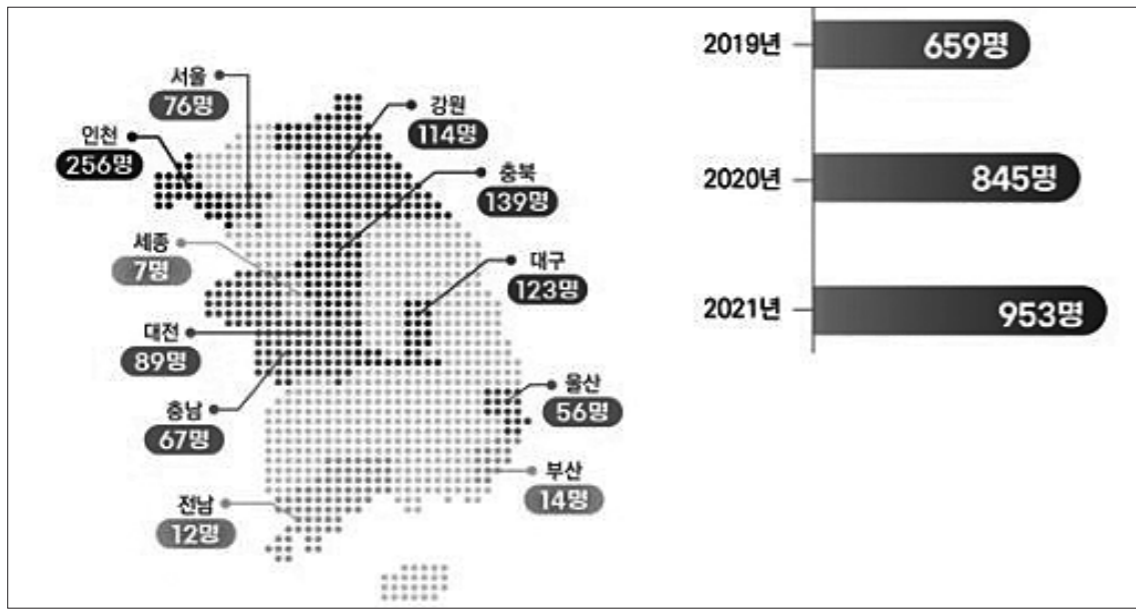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게재 개월 및 기탁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대리 (T.043-234-0840~2)

외면 당하는 고독사, 기준없어 통계 못내



(2021년 17개 시·도별 고독사 사망자 현황)

정부, 하반기 중 올해 첫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예정

국회입법조사처의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고독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몇 명인

지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올해 첫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향후 급증할 1인 초고령 노인 가구에 대한 정책 설계가 핵심인데, 정책

기반이 될 기초적 자료가 부재한 셈이다.

그동안 지역별로 자체적인 집계 방식을 사용해 왔는데, 시신 인수가 없는 '무연고사'와 혼용되거나 집계 자체가 없는 등 제각각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전국 17개 시·도별 고독사 현황을 취합한 결과, 고독사 추정 사망자는

2019년 659명→2020년 845명→2021년 953명으로 증가했다. 12개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사 자료를 대신 제출했다. 서울과 부산, 제주를 자체적인 고독사 집계 자료를 냈고, 광주·전북·경북·경남은 자료가 없어 제출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홀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 없으면 '고독사', 시신 인수가 없거나 가족이 거부하면 '무연고사'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단순 분류로는 고독사 사례를 놓치기 십상이다. 고립된 사망해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고독사와 무연고사 모두에 해당할 수 있지만 '무연고사'로만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통계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다양한 관계기관들 간 정보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고독사에 방법론을 따라 하반기 중으로 첫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확정... 5.0% 올랐다

460원 인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된 최저임금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연남뉴스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9160원보다 46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5%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된 최저임금이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달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소 요구안으로 각각 1만890원(18.9% 인상), 9160원(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이 나왔고, 이날 2·3차 수정안을 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이 마지막으로 내놓은 수정안은 1만800원(10%인상)과 9330원(1.8% 인상)이었다. 노동

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공익위원들은 9410~9860원(2.7~7.6%인상)으로 심의 폭진 구간을 제시했다. 노사가 이를 거부하자 공익위원 측은 9620원 단일안을 상정하며 표결을 진행했다.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동당 소속 위원들(4명)이 집단 퇴장하고, 사용자위원(9명)들도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총 위원 5명만 참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에 해당한다. 올해 191만4440원보다 9만140원 오르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치솟았다가 2020년 2.87%, 2021년 1.5%에 머물렀다. 올해 인상률은 5.1%였다.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으면 8월5일 고시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저상버스' 늘린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 강화 위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이 쉬운 저상버스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교통약

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에 대한 적용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9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내·농어촌버스·마을버스는 대·폐차시 반드시 저상버스를 활용해야 한다. 시외버스에는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는 오는 2027년 1월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예외 기준도 뒀다. 도입 의무화 대상이지만, 도로 구조·시설 등 각종 한계로 저상버스 도입이 곤란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해당 교통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예외 승인 대상은 도로 상부 시

설·구조물(교량 등)의 높이가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 도로 종단 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해 도로와 버스하부 간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노선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도입 예외 승인 대상에 대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12월 중 공포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중위소득 72% 청소년 한부모에 맞춤형 지원 제공

여성가족부, '자립 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실시해

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중위소득 72% 이하(2인 가구, 234만 7000원)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 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립 지원 패키지'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사례 관리를 말한다.

여가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양

육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위해 2010년부터 이동양육비, 자립 지원 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난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별도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어 정보부족 등으로 정부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

모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등을 제출받아 소득기준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 한부모는 사업수행기관의 개별 지원 계획에 따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사례관리를 받는다.

여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모형을 내실화하는 등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대상 확대

최저임금 적용제외자도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 지원

정부가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비용의 대상자를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까지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과 장

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및 구입·사용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출퇴근 비용의 지원 대상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되, 지원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

규칙과 고시에 각각 재위임했다.

또 올해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로 대상자를 확대,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중 중위임금 100% 미만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까지로 넓혔다.

출퇴근 비용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그동안 장애인 근로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 신청을 통해서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기기 신청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이를 반영해 장애인 근로자가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 본인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권이 부여되면 장애인 근로자 본인 신청을 통해서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봄시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봄비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

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4,51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클 수도 있고, 돌봄 시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연간 840시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보육 예산액을 적극 활용하여 7

월 11일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14.3%) 추가 확대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로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4. 신청 및 문의

- 충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과 김민지 대리

전화 043)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 36명 지방의회 대거 진출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달 30일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된 충북협회 회원들을 기념하기 위한 축하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회복지전문가 이화정, 김완식, 이종민 의원 등 이름 올려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축하연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돼 지방의회에 진출했다. 특히 10년간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장을 역임한 이화정(국민의힘 다선거구) 청주시의원과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장과 충청

북도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완식(국민의힘 다선거구) 청주시의원, 충북보건과학대 사회복지과 겸임교수인 이종민(국민의힘 비례대표) 청주시의원 등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초선 의원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준환, 이하 충북협회는)

지난달 30일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된 충북협회 회원들을 기념하기 위한 축하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회원 축하연은 선거에 당선된 회원을 축하하고 지방자치 현장에서 지역복지 국가 실현 및 사회복지현장 환경 개선의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축하연에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당선인 36명 중 충북협회 회원인 광

역도의원 김중필, 안치영, 기초의원 한병수(청주시), 홍성익(충주시), 김수완(제천시), 조성룡(단양군), 이경노(보은군), 안미선(괴산군) 등 22명의 당선인과 충북협회 김준환 회장을 비롯한 시군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오찬을 겸한 이날 축하연에는 충북협회 김준환 회장의 환영사, 당선 축하패 및 사회복지사 배치 전달식, 당선사로 진행됐으며, 이후 협회소개 및 시군에서 실행 가능한 사회복지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준환 회장은 "국민들의 선택으로 당선된 의원님들 모두 축하드리며, 같은 사회복지인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며 "충청북도 복지의 발전과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과 권익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협회도 복지 발전을 위한 동행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축하연에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14명 당선인들에게도 추후 직접 방문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산남종합복지관 '카페 행복하이' 오픈

SK하이닉스, 지역 내 노인 일자리 창출 '충력'



산남종합사회복지관의 '카페 행복하이' 오픈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생산적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탄생한 카페 '행복하이'가 청주시 서원구 산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픈 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복하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SK하이닉스,

복지관 관계자 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행복하이는 지역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 바리스타' 카페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실버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후,

카페 취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가 진행했다.

행복하이는 산남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위치해 커피 등 다양한 음료를 제공한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60세 이상의 8명의 직원이 직접 커피를 만든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지역민을 위한 작품전시회, 시 낭송회, 영화상영 등 다양한 행사 진행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명희 바리스타는 "코로나19로 지난해 오픈을 준비하고도 운영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새로운 공간에서 인생2막을 시작할 수 있게돼 행복하다"고 말했다.

건강한 여름나기 "열무에 사랑을 담 담"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이 초복을 앞두고 12일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건강한 여름나기 '열무에 사랑을 담 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초복 맞아 건강식 200세대 전달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오재훈)은 초복을 앞두고 12일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건강한 여름나기 '열무에 사랑을 담 담' 행사를 진행했다.

복지관 별관 앞에서 열린 행사는 옥천을 새마을부녀회 20여명의 회원이 무더위에도 직접 열무김치를 담고 삼계탕에 잘 어울리는 오이무침도 만들어 포장하고 배달까지 자원봉사활동을 펼치

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열무김치와 오이무침, 삼계탕, 방울토마토, 냉면 등 여름철에 먹기 좋은 음식으로 구성된 건강식 세트는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가정 200여 세대에 전달했다.

이중 삼계탕은 무더위로 변질 위험이 있어 밀봉해 보존이 편한 레토르트 식품으로 전달했고, 지역 식품업체인 교동식품에서 냉

면 240개를 후원해 줘 더욱 알차게 지원됐다.

보양식을 전달받은 장애인 A씨는 "올여름은 무더위가 빨리 찾아와서 고생스러웠는데 덕분에 거뜰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오재훈 관장은 "옥천을 새마을부녀회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욕구에 맞춰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LG화학 청주공장 노사, 교복지원금 1천만원 후원



LG화학 청주공장 노사 관계자들이 14일 청주시청에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교복지원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 내 저소득층 청소년 40명에게 교복 쿠폰 지원

LG화학 청주공장(주재임원 최 종완 상무)과 노동조합(지회장 우

적 어려움으로 제때 교복을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했다.

후원금은 청주시 지역 내 저소득층 청소년 40여명에게 교복 쿠폰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LG화학 청주공장 노사는 앞서 지난 4월 청주시 저소득층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청주페이로 지원했다.

이외에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설비 지원, 아동 보육시설 및 장애인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왔다.

LG화학 관계자는 "지역과 함께하는 대표 기업으로서 저소득층 가정 대상 사랑의 연탄후원, 소년소녀가장 생활비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 아동 복지증진 힘쓰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본부 · 괴산차세대기업경영협의회 협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본부(본부장 차용기)는 지난 5일 괴산차세대기업경영협의회와 지역 사회 취약계층 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호 간 정보 제공과 업무 연계, 공동사업 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괴산 1기업 괴산 1아동 결연캠페인에 동참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의 권리를 증진시킬 나갈 계획이다.

이종광 괴산차세대기업경영협의회 회장은 "지역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어린이재단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재단과 협력해 지역사회 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본부와 괴산차세대기업경영협의회가 지난 5일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편, 괴산차세대기업경영협의회는 괴산군 주요 기업 간 상호

발전과 지역사회공헌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청주시, 저소득층 노인 안과 수술비 지원

청주시는 만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백내장과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

받은 사람이다.

지원범위는 신청절차와 관련해 수술비와 혈액,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 등 사전검사비 등이다.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거주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심사가 이뤄진다. 재단이 대상자로 선정하

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선정 전 수술 받은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043-201-3163), 서원보건소(043-201-3265), 흥덕보건소(043-201-3362), 청원보건소(043-201-3498)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숙 흥덕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고용및직업
- 주거지원
- 보육및교육
- 의료및건강
- 요양및돌봄
- 정신및심리정서지원
- 문화및여가
- 권익보장및법률
- 일상생활지원
-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충북복지넷
www.043w.or.kr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

37개 정부기관 157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달 30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57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보건분야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를 16~19%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액 신설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단가적용) 기준에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 지원 단가 적용

●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신규 지원

2022년 7월부터 입양대상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 보다 더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에 대한 지원이 신설된다.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위탁가정 부모님에게 월 1백만원의 보호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위탁가정(일반 및 전제)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한다. 또한, 보호기간 동안에 입양대상아동의 발달 상황과 건강 상태 등 성장 스토리를 주기적(일별, 월별)으로 기록하고, 새롭게 만나게 되는 부모님에게 그간의 성장 스토리를 제공하여 긴밀한 애착 형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대상 전국민 확대

2022년 9월부터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

원하는 모든 국민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수급 가능성 있는 급여정보를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 사업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포스트 코로나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R&D)사업 실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혈액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환자중심의 안전한 환자혈액관리(PBM) 정착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 연구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외출 자제, 대면접촉 감소 등으로 인해 혈액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주요 헌혈층인 10대·20대 인구는 줄어들고 수혈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혈 대체 요법 또는 적정수혈의 효율성·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 연구 및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지원하며, 빈혈·수혈 유발요인 규명을 위한 역학 통계연구와 수혈 대체 요법 또는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의 개념증명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 분야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등의 의견을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2022년 7월부터는 ①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②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③가게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그간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특고 전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42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관리를 위해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41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시행일 : 2022년 7월 4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근로자가 임의소득 격차 없이 직업을 변경하여, 질병 약화와 인공관 폐양하고 보다 빨리 일자리로 복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47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를 시행합니다.

·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간접영업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부여를 시·군·구별 단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포함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32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람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어려움(간접영업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부여를 시·군·구별 단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30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여, 자녀 양육과 학업 또는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26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됩니다.

·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게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윤리 원칙 및 자율규제의 확보를 위한 윤리원칙이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156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Before

지금까지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 확인하였습니다.

After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2022년 7월부터 전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를 위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중장년 재직자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 현재, 만 35세 이상 만 54세 미만 중장년 구직자에게만 지원(만 34세 이하 청년은 재직자, 구직자 지원)

여성·육아·보육분야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추진

2022년 7월부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 및 연계해 주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혼자서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정보 부족 등으로 각종 정부 지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청소년 한부모에게 보다 체계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 대학 확대 시행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류인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통해 수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전국 11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습 및 활동한 내용을 대학진학 시 활용하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제도로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 입시 지원에서 겪는 차별을 개선하고, 교육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입시에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을 확대한다.

※ (22학년도 대학입시) 6개 대학 → (23학년도 대학입시) 11개 대학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만 9~24세로 확대했다.

그동안 생리용품 바우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만 9~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었으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전체(만 9~24세)로 확대되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이 한층 더 강화됐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부터는 만 19~24세 여성청소년도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도 인상되어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모바일 서비스 앱 '자립해냄' iOS용 구축·지원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에 대한 정보 접근을 수월하게 하고 맞춤형 자립지원 정보제공, 자립준비 자가진단 및 사이버·전화·문자·카카오톡 상담을 지원하는 모바일 앱(APP) 「자립해냄」iOS용 버전을 지원한다.

2021년에 안드로이드용 버전 지원에 이어 올해 iOS용 버전 추가 개발·지원으로 가정 밖 청소년 서비스 지원 효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립에 성공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성공담을 공유하는 '멘토멘티 게시판'을 개설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의지를 북돋고 성공사례를 널리 확산한다.

또한,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등의 청소년시설을 추가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을 새로 도입했다.

교육 분야

●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2022년 7월부터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한다.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은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세번째 시행하는 것으로, 과거 전환대출 시행 시 지원을 받지 못한 2012년 대출자가 확대되고 전환금리는 2.9%를 적용하여, 대출자의 금리 부담은 평균 2%p 완화된다.

이번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2년 7월 6일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2022년 7월 28일부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어 체계적인 급식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한다.

센터 소속 영양사가 직접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급식위생·영양관리 지도, 질량맞춤형 식단, 대상자별 교육 및 이용자 영양관리 등을 제공한다.

복지광장

효자가 아닌 '시민'이 되는 사회

복지포럼

한국, '고령층 취업률 세계 1위'라는 슬픈 자화상



서 명 선
괴산군노인복지관장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소소한 일상들의 소중함을 재 발견하기도 전에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맞이한 위기상황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휩싸였다. 이제는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다각적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돌봄으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다각적 고민이 필요하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돌봄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돌봄 체계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돌봄을 사회화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가족주의(대부분 여성에게)에 기대어 온 돌봄의 문제를 가시화하고 공적 영역으로 옮겨 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족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수행되던 돌봄이 사회정책을 통해 공식화되며 사회화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 상황을 겪으며 돌봄의 역할이 가정으로, 그중에서도 여성 중심으로 회귀되어 어짐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장애인 자녀를 키우던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거나 영케어러(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는 젊은이)라고 일컬어지는 20대 자녀가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의 돌봄을 감당하다 살해하는 일명 '간병살인'과 같은 가족 내 돌봄의 끈을 접하게 된다. 이들의 유사 인터뷰에서의 공통점은 "살 자체가 너무 힘들다"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 중에

서도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 평소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돌봄 문제는 고스란히 가족의 부담이 되었고, 가정에서는 재난상황과 돌봄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또한, 돌봄 제공기관의 운영 중단이라는 초유의 '돌봄 재난' 상황에서도 돌봄의 문제는 고스란히 가족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치매 국가책임제', '돌봄의 양적 확대' 등 공공영역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위기상황에서의 돌봄 책임의 총착역은 '가족'이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돌봄의 문제가 가족 내 책임만으로 국한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돌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족구조의 변화(1인 가구 증가 등)와 인구·사회학적 요인(노인 인구 증가)은 가족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난 체계화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부나 언론에서는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라!"고 강조한다.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타인과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인 '집'에 머물라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안전한 집을 담당하고 있는가?" 가족

구성원의 안전한 집을 담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엄마, 부인, 딸로 명명되어지는 여성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 안에서 여성들은 가족내 돌봄의 책임과 돌봄의 역할 수행을 위한 노동력 상실(경력 단절) 등 다중적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회적 돌봄을 체계화함에 있어 젠더관점에서의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0대 치매아버지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단편영화 감독을 꿈꾸던 20대 청년(영케어러)의 치열한 삶을 기록한 '아빠의 아빠'가 되었다의 저자 조기현 작가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어느 곳에 가든 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나에게 효자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효자이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사회에서 '그냥 시민'이고 싶다."

가족중심의 돌봄체계 안에서 돌봄 제공자는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효자, 효녀, 효부 등'이 된다. 돌봄의 수혜자는 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돌봄으로 효자, 효녀가 되지 않는 사회, 돌봄으로 죄인이 되지 않는 사회, 우리 모두가 그냥 '시민'이 되는 그런 체계화된 사회적 돌봄의 시스템이 갖추어질 길 바란다.



박 상 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출판·홍보위원장

일본에는 삼도(三度)빈곤설이라는 말이 있다. 보통사람들이 일생에 세 번의 가난을 맞는다라는 것이다. 첫 번째는 대졸이후 일자리를 못찾고 방황하는 20대 청년실업, 두 번째는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집 장만 등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40대 적자 인생, 세 번째는 정년퇴직 이후 자녀 집장만 등으로 허리가 휘는 60대 황혼기를 이룬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나라가 부자일뿐이지 국민 소득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특히 일본의 고령층은 노후연금 제도가 발달된 유럽 선진국과 달리 노후가 불안정하다.

일본 정부는 노인 빈곤이 사회이슈와 되자 지난 2004년 연금제도를 개혁하면서 전 국민이 100세까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연금액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일본 역시 인구감소가 국가현안이 된 상황에서 노인연금을 올려 줄 만큼 국가재정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 노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률이 25.1%(2021년 총무성 자료)에 달한다. 1천만명에 육박하는 노인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다시 현업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본도 한국보다는 양호한 편이다. 고령층 취업률은 미국(18%), 영국(10.5%)도 한국엔 명함도 못내린다. 한국은 34.1%(2020년)으로 OECD국가중 압도적인 1위다. 삼도빈곤설에 더 잘맞는 나라는 일본보다 한국이다. 선진국도 일하는 노인들이 있지만 생계난 때문에 일하는 비율은 한국이 월등하다.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경로당은 커녕 노인복지관 출입도 애매한 '젊은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거나 은

퇴후 남은 시간을 보다 유익하고 생산적으로 보내기 위해 취업한다면 외려 적극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고령층은 일하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직장을 잡고 가정을 일구고 현역시절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25.9%에 불과하고 통장 잔고와 개인연금 같은 자본소득도 22.1% 수준밖에 안된다.

이 때문에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로 역시 OECD국가중 단연 1위다. 노인 빈부격차도 커 65세이상 연령층의 지니계수는 코스타리카가 칠레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2018년 통계). 이 때문에 노인 열령층 네명은 임시직 이든 일용직이든 일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구조다.

사회학자 아츠리(Atchley, R)는 "퇴직이란 개인이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풀타임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퇴직후 소득의 일부분을 다년간 일한 노동의 결과로 얻은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아츠리의 '퇴직의 정의'를 기준으로 한다면 고령층 상당수는 나이 때문에 울며겨자 먹기로 정년했음뿐 퇴직이라고 볼 수 없다. 적어도 힘이 딸리거나 일을 못하는 71세(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조사)까지는 돈을 벌지 않으면 실업상태이기 때문이다.

한창 현역때는 은퇴하면 자유 시간이 많아져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든 희망을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난 '장수시대'의 현실은 수많은 고령층을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도 옛날 이야기가 됐다.

60대 중후반의 나이에 20대 청년들처럼 구직활동을 벌이게 될것을 상상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고령층 취업률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은 자랑스러운 기록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슬픈 자화상일 뿐이다.

현장의 목소리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과정



장 형 공
충북하나센터 과장

충북하나센터는 초기정착지원, 남북 주민교류, 사례관리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도착하여 처음 교육을 받는 기관은 통일부 소속기관인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그 후부터는 하나센터의 역할이 시작된다. 센터 직원들이 직접 하나원을 방문해 신청한 지역으로 함께 이동해 주택계약, 주민등록증 신청, 전입신고 등 북한이탈주민 지역에서 거주 할 수 있는 행정절차 도움을 주고 있다. 거주할 수 있는 집은 LH임대아파트로 배정을 받는다. 이때 임시주민등록을 받으며

"이 증을 받기 위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왔는데.."라며 눈물이 보이시는 분도 많다. 지역전입 이틀 후 8일 50시간동안 초기집중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내용은 공공기관 방문, 마트 이용방법 안내, 대중교통 체험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체험적 교육 등이다. 교육을 진행할 때 내가 중국 연변에서 살게 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말은 통하지만 말의 의미가 다르고 처음 거주하는 곳에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갖으며 교육을 하고 있다. 북한은 차가 없고 대부분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한다. 그래서 교육 중 차로 이동하게 되면 차멀미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도 많다. 이렇게 지역전입, 초기집중교육이 끝나게 되면 정착도우미 자원봉사자를 1:1로 매칭해 6개월 동안 정착지원을 돕는다. 정착도우미 매칭까지 마무리되면 초기지역 적응지원이 끝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북한이탈주민이 초기전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2016년~2022년 충청북도로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평균 41명에서 2021년~2022년은 2명으로 95%가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북한이 국경지대에 철조망을 치고 탈북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빨리 코로나 상황이 더욱 완화되어 충청북도로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나센터에서는 초기지역적응지원이 끝나면 사례관리와 취업지원이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력서 작성, 면접동행, 취업 바우처 카드 지원, 사후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례관리의 경우 6개월 집중관리 이후 지속 관리여부를 판단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심리·정서안정지원사업, 사회보장제도교육, 인권교육, 가족통합, 지역통합사업 등 다양한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을 돕는다. 지역통합사업의 경우 남북한 주민이 함께 합창, 스포츠, 김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시키는 사업이다. 많은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문화탐방이다. 최근에는 후원기관의 도움으로 통일전망대 헤이리 마을을 견학했다. 통일전망대에서 북한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북한이탈주민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가고 싶은 지역은 매년 제주도가 압도적이다. 이에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날이 꼭 오길 희망한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가장 힘든 것은 차별이다. 북한은 대부분 장마당(재래시장)에서 수입을 얻어 직업에 대한 경력이 적다. 탈북과정에서는 중국을 반드시 거쳐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력 단절도 겪는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취업 후 가장 큰 문제는 직장동료의 차별을

겪는다는 것이다. 직장동료가 "정말 한국사람 맞아요?", "주민등록증 보여주세요?", "북한이주민 때문에 세금을 너무 많이 내" 등 모욕적인 말을 자주 듣는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장 적응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또 언어와 소통에도 차별을 겪는다. 북한은 돈이 높고 말투가 직설적이다 보니 화가 났다는 오해를 사는 경우도 많다. 소통에도 차이가 있는데 한 예로 "다음에 밥 한번 먹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적인 인사말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이 받아 들이기에는 "언제 먹자는 거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만큼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조건 남한사회적응을 요구하는 것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도 많다.

도내 북한이탈주민은 1,387명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어찌 보면 통일이 되기 전 '먼저 온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충북하나센터의 슬로건은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싶은 충북 만들겠다. 앞으로도 슬로건을 이루기 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똑똑똑! 법률상담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상담 서비스 법률상담터

법률상담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민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달의 법률상식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임대인과 2020년 5월 1일 보증금 1억 임차 기간 2년의 전세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살고 있습니다. 임차기간 만료 1달 전인 2022년 3월 즈음에 임대인에게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임대인은 2022년 4월 30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반환하겠다고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사정상 다른 곳으로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민우선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1달 전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2022년 4월 30일에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기한까지 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신청과 동시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나,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서 이사를 나가도 여전히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 혼자 신청할 수 있고 그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며 설사 추후 보증금을 지급하여 말소가 되어도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임대차등기 및 말소 내용이 남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연12%의 지연이자까지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인사동정

사회복지 전문가 이화정, 국힘 청주시의원 당선



이화정 청주시의원

前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장인 이화정 의원이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청주시의원(다선)으로 당선됐다. 이화정 의원은 청주대 사회복지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 후 충북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행정

총무국장,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장,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를 역임하는 등 31년간 사회복지 전문가로 활동했다. 특히, 2012년부터 10년간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실무에 능하고 무엇이든 '현장'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관리자로 평가되면서 충청북도로부터 3번의 연임을 이끌어냈다. 지난 1월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장에서 내려온 뒤에는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회복지위원장을 맡으며 사회복지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이 의원은 현장 경력의 전문가라는 기대를 안고의정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부담되고 힘도 된다고 한다. 의정활동 또한 사회복지 영역 중에서 중요한 영역임을 새삼 깨닫고 있다고 했다. 실천 현장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던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도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라고 생각하며, 명분 있는 이직을 위해 귀한 한 표를 사회복지사에게 주신 지역주민에게 실천 현장에서 응답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제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김창수 / 7월 1일자
- 중평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오종식 / 7월 1일자
- 오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유응모 / 7월 1일자
- 상보사회복지관 >관장 정태선 / 7월 1일자
- 옥천군가족센터 >센터장 신현숙 / 7월 14일자

복지정보 제공

[푸르메재단] 2022 MBC지금은라디오시대 장애인 치료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으로 치료치료가 필요한 장애인(등록 장애인에 한함, 미등록 불가)
- 지원인원: 87명
- 지원규모: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치료치료비 지원(임플란트 가능/교정 및 전신마취비 지원 불가)
- 신청방법: 사례 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의 사례관리자가 신청(개인 신청 불가)
- 신청서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 (do0107@purme.org)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알리미-신청공지에서 다운
- 신청기간: 2022.7.11.(월)~8.31.(수)
- 선정결과: 2022년 9월 중
- 문의: 02-6395-7003

[바보의나눔] 2023년 공모배분사업 안내 (~8/1)

- 신청대상 및 분야: 해외(해외지역공동체개발사업) / 국내-소규모 단체 지원사업 / 기획-사각지대 이주민

지원사업, 청소년 함께 지원사업, 재단 비전과 가치 활성화 지원사업, 밥이 되어주세요 지원사업, 학대피해 어르신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2.7.14.(목)~8.11.(목) 18시까지
- 신청방법: <https://www.babo.or.kr/>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또는 우편 제출
- 서류 심사발표: 2022.9.21.(수)
- 최종발표: 2022.12.1.(목)
- 문의: 02-727-2503~5, 2511

[기아대책] 기대플러스기아대책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희망동지'

- 사업기간: 상시모집
- 사업대상 및 기준: 아동을 포함한 가정 중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100% 이하가정으로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청방법: 사회복지관련기관을 통한 신청
- 지원기준: 아동을 포함한 가정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기준에 충족하는 가구
- 지원내용: 생계비(최대 600만원), 의료비(최대 1,000만원), 주거비(최대 500만원), 교육비(최대 300만원), 심리정서치료비(최

대 10회 기준)

- 문의: 02-544-9544
- 참고: <https://hope.kfhi.or.kr/>
- [밀알복지재단]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지원내용: 장애아동 수술비 지원(최대 500만원), 재활치료 및 의료 소모품 지원(최대 240만원)
- 지원대상: 19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
- 신청방법: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mira.or.kr/>)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제출
- 모집기간: 상시접수(해당 지역별 사업기관 리스트 참고)
- 문의: 070-7462-9135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SOC 복지지원사업' 안내

- 대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나 민간 단체 지원이 신속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 신청서 작성 이메일접수(asan-sos@amc.seoul.kr)
- 문의: 02-3010-2566, 2585

자원 봉사자 모집

- ▶ 영상제작 미디어교육 보조 봉사 관리센터: 음성군수어통역센터 활동기간: 7.1~8.31 전화번호: 043-883-2330
- ▶ 아동방과후교실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7.1~8.31 전화번호: 043-236-3600
- ▶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관리센터: 충주성심맹아원 활동기간: 7.1~8.31 전화번호: 043-843-1432
- ▶ 스마트기기 사용법 안내 상담 관리센터: 청주가경노인복지관 활동기간: 7.1~8.31 전화번호: 043-236-0111

- ▶ 주방봉사(설거지) 관리센터: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7.1~8.31 전화번호: 043-275-7411
- ▶ 행정업무보조 봉사 관리센터: 음성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7.1~8.31 전화번호: 043-883-2470
- ▶ 학습정서 멘토링 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충주시가족센터 활동기간: 7.1~8.31 전화번호: 043-857-5960
- ▶ 찾아가는 실버건강대학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괴산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7.1~8.31 전화번호: 043-834-3411

- ▶ 도시락 배달 봉사 관리센터: 산남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7.1~8.31 전화번호: 043-288-1428

- ▶ 기증품 접수 등 행정보조 관리센터: 아름다운가게 청주신봉점 활동기간: 7.1~8.31 전화번호: 043-221-0011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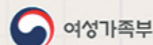
누리재능기부복지회, 문화·예술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누리재능기부복지회(단장 김금자)는 지난 7월 4일 청주시에 위치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연

봉사활동을 했다. 누리재능기부복지회는 2018년 6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 해오고 있다.

김금자 단장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 행사가 어려운 시점에 공연 기회를 마련해준 센터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고싶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win1004@naver.com)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2,516천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22.6.1.기준 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7월1일~) *시범사업기간: '22. 7.~12. (6개월간)

문의 사항이 있다면?

-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복/지/만/평

치료

이창신 www.bokmani.com



끓은 상처는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끓었다고 팔까지 자르진 않습니다. 조직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건강을 되찾는게 목적이 아니라 잘라내는게 목적이 아닙니다.